

한국 지역사회간호의 선구자 이금전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이 꽃 메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Historical Review of Lee Keumjeon, a Pioneer in Community Health Nursing in Korea

YI, Ggodm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Sangji University, Wonju,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health nursing in Korea in light of the life of Lee Keumjeon (1900~1990), who devoted her life to community health nursing. **Methods:**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Results:** Lee could get high level education up to college courses, which was very exceptional at that time in Korea. She got nursing and midwifery education in Severance Hospital (1929) and majored in public health nursing at Toronto University (1930). Then, she worked in mother-and-child health practice for more than 10 years. She helped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to publish Public Health Nursing (1933) and other nursing books.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she became a governmental official in the public health nursing field and tried to establish the national public health nursing system. During the Korean War, she devoted herself to nursing education and practice at nursing schools and hospitals. After the war, she worked as president of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In 1959, Lee was given the Nightingale award. Although she retired in 1960, she continued to devote herself to the development of nursing, and published her book Public Health Nursing (1967). **Conclusion:** Lee worked from 1920s to 1960s for the development of nursing in Korea and during the period Korean nursing showed great development to national system and professional status.

Key Words: Community health nursing, Public health nursing, History of nursing, Korea, Historical biography

서론

1920년대 초 각지의 선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간호사업은 이후 90여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 역사에 관한 연구는 첫째, 여타 간호역사 연구에서 관련된 부분이 일부 기술되는 경우, 둘째, 지역사회간호의 특정 분야 또는 특정 시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대한 간호협회의 역사(Korea Nurses Association [KNA], 1997),

후자의 경우 일제시대 선교계의 지역사회간호사업(Yi & Kim, 1999), 1970년대 이후 지역사회간호학회의 발전(Yi, 2012-a) 등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1세기에 이르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역사와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에 족적을 남긴 인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우리나라 근현대 간호 인물 중에 개별적 연구대상이 된 인물로는 박자혜, 한신광, 정종명, 유순한, 전산초 등이 있다. 간호인물에 대한 연구 자체가 빈약할 뿐 아니라, 이들중 누구도 지역사회간호 역사의 대표적 인물로 거론하기는 어렵다. 박

주요어: 보건간호, 지역사회간호, 간호역사, 한국

Corresponding author: YI, Ggodme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Health Scienc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gil, Wonju 220-720, Korea.
Tel: +82-33-738-7621, Fax: +82-33-738-7620, E-mail: yime@sj.ac.kr

투고일: 2013년 2월 13일 / **심사완료일:** 2013년 3월 19일 / **게재확정일:** 2013년 3월 23일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자혜, 한신광, 정종명은 모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산파 면허 소지자로서 자신의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독립운동, 여성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였다(Yi, 2006, 2012-b). 한신광의 경우, 1924년 서울 태화여자관에서 선교간호사 로젠버거(Rosenberger)와 함께 보건간호사업을 시작했지만 약 2년 후에는 지역사회간호 실무를 떠났다. 유순환과 전산초는 해방 이후 한국 간호계의 지도자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인물이지만(Mepool foundation, 2012) 지역사회간호에 기반을 두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역사에 부각되는 인물이 없다는 것은 지난 일제기에 걸친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변화와 성과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부각되는 구심점이 나타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 우리가 근대 미국의 지역사회간호사업을 생각하면 릴리안 왈드(Lilian Wald, 1867~1940)라는 인물이 뉴욕의 헨리가 복지사업(Henry Street Settlement)에서 이룩한 성과를 통하여 생생하게 떠오르는 발전의 모습이 있다. 이처럼 지역사회간호 역사를 되돌아 볼 때 그 변천과 성과가 구체적으로 집약되는 인물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그 인물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지난 역사를 찾아가서 발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족적을 남긴 인물을 찾아내서 그 인물의 간호사로서의 생애를 통하여 지역사회간호의 성과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가 어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간호 인물 개인의 노력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고, 그래서 지역사회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실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그 인물을 역할 모델로 삼으며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겠다는 필요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이러한 필요성에서 20세기 지역간호계의 여러 인물을 살펴다가 이금전(李金田, 1900~1982)을 재발견하게 되었다. 이금전은 일제시대 가장 앞선 지역사회간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던 태화여자관에서(Yi & Kim, 1999) 간호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하여 이후 30여 년간 실무, 교육, 행정, 조직, 학문 등 간호의 각 영역에서 선구적으로 활동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1959년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하였다. 그렇지만 이금전의 행적에 대하여 정리된 것은 1977년에 편찬된 역대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공적서에 실린 내용 두 페이지가 전부였다(KNA, 1977). 본 연구에서는 이금전에 대한 역사적 전기(historical biography)이며, 이를 통하여 이금전의 지역사회간호에 대한 공적뿐 아니라 우

리나라 지역사회간호가 일제시대, 해방,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수립, 한국전쟁, 전후복구기를 거치면서 겪은 변화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시도하였다.

연구방법

역사학은 문자를 사용하는 역사시대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에 따른 변화를 전제로 한다. 역사학의 연구자료는 보통 일차사료(primary source)와 이차사료(secondary source)로 나누는데, 주요 연구자료가 되는 일차사료는 연구대상 시기에 만들어진 자료로써 단행본, 신문, 잡지 등이고 이차사료는 연구대상에 관하여 당대 이후에 제3자가 수집하고 때로는 분석을 곁들인 것이다. 전통적으로 역사학에서는 글로 남겨진 일차사료와 이차사료를 수집하고 분석했지만, 20세기 이후 이러한 방법의 연구가 남성중심, 정치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유물, 유적, 사진, 영상,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한 구술 등의 비문자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Maggs, 1989).

본 연구의 대상인 이금전에 관한 선행연구가 없기 때문에 관련 일차사료를 발굴하고 그 행적을 재구성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였다. 일차 사료로는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외일보”, “동광”, “삼천리” 등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간행된 일간지와 잡지에 실린 관계 기사, “간호학회보”, “대한간호” 등 전문지에 실린 이금전 본인의 글 및 저서 “보건간호”(1967) 등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문헌 사료를 통한 접근으로는 부족했던 부분, 특히, 가족 배경과 성장, 은퇴 이후의 삶과 사망 등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부(子婦) 박희경 선생과의 2012년 12월 이메일을 통한 인터뷰로 보충했는데, 박희경 선생과의 연결은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동창회의 도움으로 가능하였다. 이상의 일차사료를 통하여 이금전의 출생과 성장과정, 교육 배경, 일제시대 보건간호사로서의 활동, 그리고 해방 이후 행정, 교육, 간호전문직단체, 그리고 학문분야 등 각 영역에서 지도자로서의 활동, 은퇴 이후의 행적, 사망을 확인하고 재구성할 수 있었다. 재구성된 이금전의 행적의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 우리나라 여성교육, 간호실무, 간호인물, 보건학의 변천 등에 관한 이차사료와 기존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이차사료로는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의 역사”(1983),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100년사”(2008), “대한간호협회 70년사”(1997)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1. 출생에서 이화여전 졸업까지

이금전은 1900년 6월 9일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206번지에서 아버지 이원근과 어머니 박애덕의 1남2녀 중 장녀로 출생하였다. 일찍이 개화하고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지만, 3세에 영유아 감염률이 매우 높았던 두창을 앓았고 다행히 회복되었으나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마마 자국이 남았다. 이금전이 열 살 정도되었을 때 이를 안타까워하는 어머니께 그 이유를 물었고, 친척 중에 두창 예방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있어 자신은 예방접종을 받지 못해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금전은 훗날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두창 감염을 계기로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된다면 이러한 병마를 쫓아버리는 일을 하여서 우리 어머니와 같은 슬픔에 잠기는 어머니가 없도록 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먹게 된 것”, 그리고 “이 마마라는 병 때문에 생긴 어머니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방의학에 속하는 공중보건 사업에 헌신할 것을 마음에 다짐 준 것”이라고 보건의료에 헌신하게 된 동기를 밝혔다(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이금전은 소녀시절에 할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KNA, 1977; Park,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3, 2012) 이후 일제시대 내내 이화학당과 연경대학, 세브란스병원 등 기독교 계열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태화여자관, 조선간호부회 등 기독교 계열의 일터와 조직에서 경력을 쌓아왔다.

이금전은 열 살에 이화학당 보통과에 입학하였다. 1908년부터 입학자격을 10세 이상으로 제한한 이화학당 규정(Ehwa Womans University, 1994) 때문이었지만, “다섯 살 때 신문을 죽죽 내리읽을 정도로 총명”(“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했으므로 1학년을 건너뛰고 바로 2학년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금전은 보통과에 이어 고등과에 진학하여 1918년 6월 졸업하였고, 바로 이화여자대학당 예과에 진학하여 1920년 6월 수료하였다(KNA, 1977; Park,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3, 2012). 보통과 재학 중에는 수신, 일본어, 한국어 및 한문, 산수, 창가, 도화, 재봉·수예·제조, 이과 등을 배웠고, 고등과에서는 수신, 일본어, 조선어작문, 수학, 이과, 지지(地誌) 및 역사, 가사, 음악, 도화, 제조, 영어 등을 배웠으며, 예과에서는 성경, 일어, 영어, 한문, 창가, 도화, 수예, 제조, 교육, 의학, 가사, 기하, 지지, 유년학 등을 배웠다(Ehwa Womans

University, 1994).

이금전은 1921년 중국으로 건너가 1924년 6월 북경 연경대학 문리과를 수료하였다(KNA, 1977). 이에는 당시 이화학당이 재정적 곤란, 학생들의 삼일운동 참여, 사회적 격변 등 대내외적 어려움이 겹쳐서 1919년에서 1921년까지 졸업식 없이 졸업생을 배출했던(Ehwa Womans University, 1994)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연경대학은 선교계에서 운영하는 중국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이금전은 이곳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의사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렇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여 문리과 수료 후에 중국 유학을 접고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1925년, 이화학당은 대학과 및 대학예과를 이화여자전문학교로 개칭하고 문과 및 음악과를 신설하였다. 이금전은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에 입학하여 학업을 계속하였다. 재학 중에 뛰어난 어학 능력을 인정받아 이화여전 대표로써 연회전문학교와의 연합 웅변대회에 ‘조선의 최대 요구’를 연제로 참가하여 일간지에 실리기도 하였다(“Ehwa Yonhee English Oratorical Contest”, 1926).

이금전은 1927년 이화여전을 제1회로 졸업하였다. 당시 최고의 여성교육기관이었던 이화여전의 졸업식은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사여서 일간지에서 이를 기사로 다루면서 문과 8명과 음악과 3명 등 열한명 졸업생의 이름, 사진과 함께 앞으로의 희망을 기술했는데, 이때 이금전은 장래 희망을 “세브란스병원 간호부장”이라고 명시하였다(“Graduates of Ehwa Womans College”, 1927).

2. 세브란스병원과 토론토대학에서의 간호학 전공

이금전은 이화여자전문학교 문과 졸업 후에 세브란스병원 산과간호부양성소에 입학하였다. 당시 세브란스 산과간호부 양성소의 특징은 입학 자격을 여자고등보통학교 또는 고등여학교 2학년 과정 수료 정도로 하면서 간호부과와 산과과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여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면 간호부 면허와 산과 면허를 모두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금전은 입학 자격의 요구수준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3년제이던 양성소를 2년 후인 1929년 졸업하고 간호부와 산과 면허를 모두 취득하였다.

세브란스 산과간호부양성소의 교과과정은 9개 필수 이론 과목과 임상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9개 필수 이론 과목은 기초간호, 해부생리, 약리학, 세균학 개인위생 및 환경 위생, 피부·비뇨기관, 산과간호학, 간호윤리, 소아과간호학,

전염병간호학 등이었다. 이들 필수 이론과목을 1학년 1학기에는 하루 6시간, 2학기에는 하루 4시간, 2학년에는 하루 3시간, 3학년에는 하루 2시간씩 하도록,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론 수업시간은 줄어들도록 구성되었다. 그 반면 임상실습은 2학년에 시작하여 하루 5시간 하다가 3학년에는 하루 6시간으로 늘어나도록 구성되었다. 기타 교과로는 식이요법, 재봉, 가사, 위생, 마사지, 일어, 산수, 봉대법, 영어, 수신 등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1학년은 교양과목을 1주일에 12시간, 전공과목을 1주일에 18시간씩 배정하여 운영하였다(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즉, 주 6일을 하루 8시간씩 공부하되 1학년에는 이론공부만 하고 2학년부턴서 주 6일 이론공부와 임상실습을 병행하면서 임상실습의 비중이 늘어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양성소 교수진은 서양인 의사, 서양인 간호사, 한국인 의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병원장이기도 했던 선교의사 에비슨(O. Avison)은 소아과학을 가르쳤고, 김창세, 오궁선 등의 조선인 의사는 의학의 기초과목과 전문과목을 가르쳤으며, 쉴즈(E. Shields) 등의 서양인 선교간호사는 간호학 이론과 실습을 담당하였다. 1928년에는 교수진의 수가 22명에 달할 정도로(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세브란스 산과간호부양성소의 교육은 탄탄하게 운영되었다.

이금전은 세브란스 산과간호부양성소 재학 중에 학업에만 열중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1928년 여름에는 남녀학생기독교청년회 연합하령회(聯合夏令會)에 참석하기도 하였다("Report on the 12th Summer Camp of Men and Women Christian Students", 1928).

이금전은 1929년 세브란스산과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하고 바로 태화여자관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해외 유학의 길에 올랐다. 이전에 시도했던 중국보다 훨씬 먼 나라인 캐나다로,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이 하는 일인 보건의간호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였다.

이금전의 캐나다 유학에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조선간호부회 대표의 국제간호협의회 참석이었다. 1929년 조선간호부회는 국제간호협의회 회원 가입을 신청하였고, 회장인 선교간호사 셰핑(Shepping)은 함께 활동하고 있던 이효경과 이금전을 동반하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간호협의회에 참석하였다. 세 사람은 1929년 6월 10일 서울을 떠나서 13일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한 후 다시 배편으로 캐나다로 가는 장도에 올랐다(KNA, 1997). 7월 8일에서 13일까지 열린 국제간호협의회에서 다루어진 이슈는 “간호학 과목 중에 심리 간호법 교수의 필요, 간호원 교육과 간호의 경제적 관념,

간호도덕, 공중위생 간호원과 사회 사업, 시민으로서의 간호원, 모성 보호, 적십자 사업, 간호 관계 법률, 정부와 간호교육, 간호원 양성소와 휴양, 농촌 간호원의 직무” 등(Unknown author, 1931) 광범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조선간호부회의 국제간호협의회 가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국제간호협의회 가입은 1국 1단체가 원칙인데 마침 일본간호부협회에서도 가입을 신청하였다는 이유였다(Yi, 2000).

이금전은 국제간호협의회 참석을 마치고 토론토로 가서 토론토대학 공중위생학과에 입학하였다. 1919년 스페인의 인플루엔자 유행 이후 증가한 보건의간호사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여 토론토대학 공중위생학과에서는 1920년부터 보건의간호학 전공자 러셀(Russell, E. K.)이 록펠러 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존의 병원 중심 간호교육에 사회사업과 보건교육을 포함시켜서 캐나다뿐 아니라 세계의 보건행정과 보건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 “등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었다. 러셀은 캐나다 최초로 대학에 기반한 간호교육을 실시하여 1928년에는 보건위생학과 내의 전공으로 인정받았다(University of Toronto, 2012).

이금전은 토론토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학과 학생 전원이 보건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후 레포트를 제출했을 때 가장 우수한 것 두 개중 하나로 선발될 정도였다(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조선인 여성의 대부분이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문맹이던 당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해외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이금전은 사회적 관심이자 모범적인 존재였다. 당시 널리 읽히던 잡지 “삼천리”에서는 조선 최고의 5개 대학 출신 인재들이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소개하는 난을 마련했는데, 그중에 이화여자전문학교 출신 이금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Unknown author, 1932).

이금전씨! 나이는 30여세이나 아직 처녀다. 씨도 역시 이화의 첫 출신이다. 씨는 문과에서 공부했건만 무엇보담도 청결한 것을 몹시 좋아하는 까닭인지 위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은 뜻을 품고 길을 살짝 돌아섰다. 씨가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내의 간호부 양성소를 졸업하고 그래도 만족하다는 뜻으로 위대한 포부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영국(캐나다의 오기: 저자)으로 발을 옮겼을 때는 벌써 4년 전이다. 그곳에 이르러서 공중위생과를 졸업하고 재작년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지금까지 태화여자관의 공중위생부에서 공중위생에 관한 사업을 위해서 몹시 노력한다고 한다.

3. 태화여자관에서 활동

이금전은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태화여자관으로 복귀하였다. 태화여자관은 1924년 선교의사 홀(Rosetta Hall), 선교간호사 로젠버거, 그리고 동대문부인병원 간호부양성소 졸업생 한신광이 영유아보건사업을 시작한 곳이었다(Yi & Kim, 1999). 한신광은 1925년 결혼하여 일본으로 가면서 일을 그만두고(Yi, 2006) 이후 최우경 등이 그 뒤를 이어 일을 하고 있었다(Yi & Kim, 1999). 그렇지만 로젠버거는 자신이 외국인이라서 조선인들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여 사업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조선인 간호사를 학수고대하던 상황이었다(Lee, 1993). 이때 이화여전 문과 졸업, 세브란스병원 산과간호부양성소 졸업, 간호부 및 산과 면허 소유,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 공중위생학과 졸업의 자격을 갖춘 이금전이 합류한 것이다. 이금전과 함께 일하게 된 로젠버거는 그 기쁨을 다음과 같은 글로 거듭 표현하였다.

지난 2년 동안 외국에서 공중위생을 공부한 이로 이 사업을 충분히 알고 좋아할 뿐 아니라 기꺼이 참여할 한국인 간호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여인이라면 자기 민족도 이해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도 공부했으니 자기 민족에게 꼭 필요한 공중위생 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서 프랜시스 리(프랜시스 리는 이금전의 다른 이름: 저자 주)를 보내주셨습니다(Rosenberger의 1929년 글(Lee, 1993에서 인용됨))

여러 간호사들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돕고 있으며, 공중위생학의 최고수준을 공부하고 돌아온 매력있고 유능한 프랜시스 리도 있습니다. 그녀가 돌아옴으로 우리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배를 출항시킬 수 있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험난한 사역의 해안선을 따라 성공적으로 항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osenberger의 1930년 글(Lee, 1993에서 인용됨))

서양인 간호사가 함께 보건간호사업을 할 능력을 가진 외국 유학자 경험자를 조선인 간호사 중에서 찾았다면 이금전 밖에 없었고, 바로 그 이금전이 사업에 합류하면서 태화여자관의 보건간호사업은 힘을 얻게 되었다. 그 외에 조선인 간호사로 전정윤이 합류하고 여기에 동대문부인병원 의사 길정

희, 세브란스병원 의사 에비슨 등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태화진찰소의 아동보건사업은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Lee, 1993).

조선의 보건간호사업을 선도하는 위치에 있던 태화여자관은 경성에서 보건사업을 실행하고 있던 세브란스병원, 동대문부인병원과 함께 1929년 경성연합아동건강회를 조직하였다. 경성연합아동건강회의 목적은 “어린이에게 안전한 한국”이었으며, 경성 전체에 하부 조직을 건설하고 동대문부인병원, 태화여자관, 세브란스병원이 각각 인근 지역을 담당하는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하였다. 출범 연도 경성연합아동건강회에서 수행한 사업은 “건아 클리닉, 산전 사업, 가정방문, 학교에서의 건강 진단, 학교에서의 건강 강연, 어머니 모임, 목욕소, 두유 보급을 포함하는 우유 보급소, 1년 1회 간호부들의 보건 집담회(health conference), 1년 1회 유아 주간” 등 열 가지에 달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Rosenberger의 글(Yi & Kim, 1999에서 인용됨)). 경성연합아동건강회에는 태화여자관 간호사 이외에도 김정선, 이효경 등의 조선인 간호사가 함께 하였고 이들은 미국 뉴욕시 헨리가(Henry Street) 간호단의 복장과 제도를 채용하였다(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1933년에는 사업의 범위가 “건강아 진찰소, 임신 중의 위생, 가정방문, 학교의 신체검사, 소학교와 중학교와 전문학교에서의 위생 강연, 자모회, 빈민 아동을 위한 무료 목욕장, 우유 공급소(콩젖도 사용), 1년 1회의 간호부 상담회, 1년 1회의 영아주일, 전염병 예방을 위한 면역 주사, 외래 환자들을 위한 산부인과, 치과” 등으로 확장되었으며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의 수가 거의 800명에 달할 정도였다(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1933). 특히, 1924년 시작된 영유아 무료 건강진단과 건강아 선발은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 매년 5월 개최되고 있었는데, 1935년에는 “어린이가 잘 기르는 법 지도회”, 우량아 시상식, 만 다섯 살 유아 25명에 대한 졸업증서 수여식 등을 하였다. 특히, 졸업증서 수여식은 “어머니가 다섯 해 동안 꾸준하게도 애기의 건강을 데리고 진찰 다닌 결과로 어머니의 정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졸업증서를 수여하는 행사로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금전이 취지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Grand Baby Show, 1935) 이 행사를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이금전은 어머니들이 읽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생 관련 소책자 집필했는데, “영양과 건강”, “자모회 공과” 등이 널리 읽혀졌다(Lee, 1993). 경성영아보건연합회는 1935년 태화여자관에서 독립하여 정동에서 일을 시작했다가, 1936년 동대문부인병원 안 간호학교 건물로 옮기고 사업을 크게 확장시켰다(Lee, 1993) 그

리고 경성에서 유일한 탁아소로 경성탁아소를 건설하여 어머니가 병이 걸렸거나 사망하여 직접 키울 수 없는 영유아를 양육하였다(Lee, 1967). 경성탁아소는 조선사회의 커다란 관심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서울 유일의 탁아소로써 최신 설비를 갖추고 영유아의 위탁보육과 주간보호라는 신개념의 사업을 했기 때문이다. 대중지 “삼천리”의 기자가 경성탁아소를 방문했을 때 맞아준 “파란 양장한 부인”은 “미국(캐나다의 오기: 저자) 가서 이 방면에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돌아오신 이금전”으로, 이금전은 경성탁아소의 시설, 운영 방침, 식단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다(Unknown author, 1938). 이후 동대문 부인병원의 보건간호사업은 더욱 확충되었다. 1939년에는 건물을 신축하여 영아 진찰실과 유치원을 두었고, 전담 인력으로 간호사 2명과 전도부인이 활동하고 있다(Yi & Kim, 1999).

이금전은 1930년대 내내 태화여자관과 경성연합아동건강회, 경성탁아소 등에서 활동하면서 보건사업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1938년 동아일보에서 “여성조선의 기라군성(嵒羅群星)”이라는 연재를 통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여성을 소개할 때 “건강한 애기를 기르는 경성아동 보건회 이금전... 영아부를 조직하고 건강 진찰을 하며 자모회를 조직하고서 다달이 위생 강연도 하고 인공영양부에서는 젓이 없거나 부족한 애기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며 또는 여러 사립 소학교에 다니면서 아동 위생을 강화하며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육아에 관한 상담도 합니다”라고 기술되기도 하였다(Lee Kumjeon of Seoul Child-Welfare Union, Raising Healthy Children, 1938).

이금전은 선교계 사업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곳에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였다. 1931년 6월에는 일간지에 “여름에 주의할 십이지장충”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십이지장충의 감염경로, 증세, 예방법, 치료법 등을 소개했는데, 특히, 어린이가 맨발로 생활하다가 십이지장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을 강조하였다.(Be Careful Hookworm in the Summer, 1931) 1932년에는 종로의 광중의원에서 “무산아동 무료진료소”를 설치하여 주 2회 무료 진료 및 투약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금전은 이곳의 건강상담부 담당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Free Diagnosis and Medication for Proletariat Children, 1932).

이금전은 간호사의 전문직단체인 조선간호부회에서도 활동하였다. 1923년 서양인 선교간호사와 선교계 간호학교 졸업생이 결성한 조선간호부회는 회장은 서양인 선교간호사, 부회장은 조선인 간호사가 맡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 이

금전은 1932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Baek, 1980). 이금전은 조선간호부회에서 주로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동했는데, 특히, 1933년 조선간호부회에서 펴낸 우리나라 최초의 보건간호학 단행본 “공중위생간호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공중보건간호학’은 가드너(M. Gardner)의 ‘Public Health Nursing’(1916)을 주로 참고하여 만들어졌는데, 가드너는 미국 프로비던스 구역간호협회(Providence District Nursing Association)의 부장이자 국제보건간호회(National Organization for Public Health Nursing)의 회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총 지휘한 로젠버거는 이금전이 교정 뿐 아니라 본문의 일부를 저술했음을 “프랜시스 리가 이 책의 교정을 보았을 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자신의 글로 기여를 하였다(Miss Frances Lee has put her work and stamp on many of the chapters as well as done the proof-reading)(Rosenberger, 1933)”고 명시하였다. 이금전은 조선간호부회에서 진행한 여타 간호학 교재의 출판에도 기여하였다(Baek, 1980).

이금전은 학문과 실무 경력을 기반으로 이화여전과 세브란스에서 강의도 하였다. 이화여전에서 담당과목은 간호학과 위생학이었으며, 1932년 6월에서 1937년 9월까지 교원으로 활동하였다(Ehwa Womans University, 1994). 1936년에는 세브란스 산과간호부양성소에서 ‘보건간호학’을 교수하였다(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이금전은 경성아동보건연합회, 조선간호부회, 이화여전 등에서의 보건간호사업, 전문직단체활동과 교육으로 매우 바쁘게 보내던 1934년 결혼을 하였다. 한국 나이로 서른 다섯, 당시 조선 여성으로는 매우 늦은 나이의 결혼이었다. 배우자는 1920년 조선총독부에서 주관한 첫 약제사 시험 합격자인 홍호연이었다. 일에 몰두하던 이금전이 늦은 나이에 결혼을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금전이 훗날 “가슴쓰린 일은 지난날 처녀로서 간호사업을 하는 그에게 자녀는 몇이나? 남편은 무엇을 하느냐?고 묻는 바람에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었다”고 회고할 정도로(Nightingale Award Given to Lee Kumjeon, 1959)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모자보건사업에 몰두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조선사회의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금전은 이미 결혼과 신혼여행 소식이 일간지에서 실릴 정도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Lee Kumjeon and Hong Hoyeon went for Honey-moon, 1934).

결혼 이후 이금전은 가정을 이루고 2남2녀의 어머니가 되면서도 보건간호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금전이 보건간호사업

을 지속하는데 장애가 된 것은 일제의 제국주의 전쟁이 확장되면서 그 전쟁수행을 위한 기지로 전락하는 식민지 조선의 상황이었다. 1940년을 전후로 서양인 선교사들은 조선에서 추방당하여 고국으로 돌아갔고 선교계에 기반을 두고 있던 모든 일들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금전이 일하던 경성탁아소의 사업 역시 중단되었는데, 이금전은 그 과정을 “경성탁아소 건물은 선교회 재산 처리하는데(처리하는 과정에서: 저자) 역을 하게도 남의 재산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사업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Lee, 1967)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4. 보건후생부 보건간호과장 및 세브란스고등간호학교장 시절

1945년 해방과 함께 남북은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사정부 체제에 들어갔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정은 보건사업을 담당할 정부 부서를 중시하여 위생국을 출범시켰고, 이후 보건후생국으로 조직을 확대하였다가 1946년 3월에는 보건후생부로 격상시켰다. 보건후생부는 산하에 간호사업국을 두었다. 간호사업국은 간호사업자문위원회를 두어 주 1회 회의를 하면서 주요 사업을 심사하였고, 산하에 간호교육과, 병원간호행정과, 산파과, 보건간호과, 등록과, 서무과 등 6개 과를 두었다. 간호사업국장으로는 홍옥순이 임명되었고(Kim et al., 2008), 미군정 초기부터 간호사업 관련 업무의 통역 겸 사무를 돕고 있던 이금전은 보건간호과장으로 임명되어 행정적 능력을 발휘하면서 전국적 차원의 보건간호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KNA, 1977). 즉, 간호사들이 보건간호 강습을 받은 후 시 보건과 간호사업계의 직원으로 활동하게 함으로써(Lee, 1967) 전국적 보건간호 체제의 틀을 짠 것이다.

보건간호 강습은 1945년 11월, 1946년 1월 등 2회에 걸쳐 6주씩 이루어졌다(Kim et al., 2008). 이금전은 손경춘, 김정선 등 보건간호사업의 경험이 있는 간호사들과 함께 보건간호 강습을 이끌었다. 강습을 마친 간호사들은 전국 각지에 배치되어 “무의촌 순회진찰 협조, 모자보건 진찰소 협조, 가정방문과 응급조산, 병원간호행정상태 시찰, 간호학교 교육 실태 조사, 고아원·양로원·이재민 구호소 및 일반 초등학교의 위생상태 시찰, 면역주사 시행 시 협조, 간호원 등록·산파 자격 및 개업실태 조사, 간호원회·산파회 조직 및 후원 등 모든 사무를 본청과 연락하는 일”(Lee, 1967)을 하였다.

간호사 교육과 배치에도 불구하고 이금전이 계획하였던 전국적 보건간호사업 수립은 중단되고 말았다. 1947년 5월 남조선과도정부가 수립되자 보건후생부 기구가 축소되면서 간

호사업국이 간호사업과로 격하되고 서울시 간호사업계 하나만 남긴 채 지방의 간호사업계는 전폐되었다. 따라서 각도에서 보건간호 사업에 종사하던 보건간호사들은 더 이상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시기 보건간호의 명맥을 이어나간 중심 기관은 서울의 중앙보건소였다. 1945년 10월 서울 을지로 4가에서 국립중앙보건소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한 시범 보건소가 전국적 보건간호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보건간호 사업을 계속하였다. 국립중앙보건소의 여러 사업이 인정받으면서 각도에서도 점차 보건소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하였고, 외국에서도 신생 대한민국의 보건소 사업을 적극적으로 원조하였다(Lee, 1967).

비록 전국적으로 보건간호행정체계를 수립하려는 노력은 중단되고 말았지만, 간호사의 전문직 단체 설립은 성공을 거두었다. 이금전은 1946년 11월, 간호사업국장 홍옥순과 함께 ‘조선간호협회’를 발족시켰다. 정부의 간호 사업을 이끌고 있던 이들이 “참다운 간호는 육신과 정신으로, 건전한 건국은 간호사업 발전에서”라는 국가적 차원의 구호를 내걸고 간호사 전문직 단체의 결성을 주도했기 때문에 조선간호협회는 해방 후의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는 드물게 전국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한복판인 명동 천주교회 강당에서 3일간에 걸쳐 결성식을 가질 수 있었다(Grand inauguration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1946)

이금전은 1948년 4월 하와이 한인회 초청으로 미국 호놀룰루에 가서 보건간호교육 및 병원 간호관리 시정을 연구할 기회를 가졌다(KNA, 1977; Lee, 1991). 그리고 이듬해 3월에는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 10대 교장으로 부임하여 간호교육에 전념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북한군이 남하하면서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와 병원도 남쪽으로 내려갔고 이금전도 피난하였다. 이금전은 거제도 장승포에서 이어진 전시 간호학교의 행정책임자로서 서울로 복귀하기까지 전쟁 중임에도 간호교육의 맥을 이어나갔다. 이금전은 전쟁으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압축수업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졸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압축수업이라고 해도 교과과정과 실습 일수를 철저히 지켰으며 그 결과 1949년 입학생 중 16명이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전시간호학교에는 세브란스 간호학교 학생 외에도 적십자, 철도, 춘천 간호학교 학생들이 같이 공부했는데 이금전이 교장으로써 재량을 발휘하여 이들도 수료증을 받도록 하여(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간호인력이 절실했던 전시 상황에서 향후 간호학력을 인정받고 간호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시 상황에서는 간호교육과 실무의 경계가 분명할 수 없었다. 이금전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에서 1952년까지 세브란스병원 11대 간호원장으로도 일하였고(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마산에 북한군의 침입이 임박하여 모든 병원 직원이 철수했을 때 홀로 병원에 남아 환자를 간호하였다(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이렇게 한국전쟁 중에 간호교육과 부상자 간호를 위하여 헌신한 것을 인정받아 이금전은 1953년 5월 보건사회부장관 표창을 받았다(KNA, 1977).

5. 대한간호협회 및 중앙간호연구원 활동

이금전은 한국전쟁 중에 피난지 부산에서도 대한간호협회 활동을 계속하였다. 1952년 5월 13일에는 대한간호협회 이사이자 국민의료령의 산파·간호원 법규에 관한 연구위원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연구위원들은 간호사 면허 검정시험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자격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그 결과 전쟁으로 간호사의 수요는 크지만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간호사 검정고시를 폐지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험 시행을 각 도(道)의 장관에게 일임하지 말고 중앙에서 받아 국가시험으로 시행함으로써 그 수준이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진정하였고, 이금전도 진정 대표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KNA, 1997).

이금전은 간호교육과 간호협회 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 과거 간호학 교재 출판에 기여했던 경험 등을 살려 협회에서 출판 업무에 매진하였다. 편집위원으로써(KNA, 1997) 간호교과서를 번역·출판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으며(KNA, 1977) “교통, 수송, 경제난, 원고 모집난까지 타개하고” 1954년 7월에는 협회 기관지 ‘대한간호’를 출간하였다(Lee, 1954).

이금전은 1954년 5월 대한간호협회 회장에 피선되어 이후 1958년 4월까지 만 4년간 4대 및 5대 회장을 역임하였고, 재임 중 대한간호협회가 명실상부한 간호사의 전문직단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그중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것은 대한간호협회가 1923년 출범한 조선간호부회를 계승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의미의 총회 차수 변경이었다. 그 다음 협회 건물 마련에 노력하였다. 당시 대한간호협회는 자기 사무실이 없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고 있었는데, 이금전은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중앙간호연구원 내에 협회 사무실을 두어 업무가 원활히 지속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55년 7월 첫 바자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적 노력을 기

울여 1956년 10월 말에는 신촌 지역 대지 209평을 매입함으로써 협회 건물 마련의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대한간호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인가 신청하는 것을 추진하여 1957년 7월 26일 사단법인으로 공인받음으로써, 의료법에 의한 간호원의 중앙회가 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위하여 일제시대의 공식 명칭인 ‘간호부’가 혼용되고 있던 것을 금지시키고 ‘간호원’으로 통일하였으며 간호원 중앙회라는 것이 명칭에서 분명히 나타나도록 ‘대한간호협회’를 ‘대한간호원회’로 개정하기도 하였다(KNA, 1997). 그 외에도 기관지 “대한간호”가 정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Lee, 1954), 1957년 4월에는 대한간호학생회를 협회 산하단체로 출범시켰으며(KNA, 1997), 1957년 5월 27일부터 로마에서 열린 제11회 국제간호협의회에 참석하여 국제 교류를 촉진하였다(Kim et al., 2008).

해방 직후 이금전이 노력을 기울이다가 정부 조직 축소로 중단되었던 간호사 재교육은 한국전쟁 종전 직후인 1954년 5월 중앙간호연구원이 개원하면서 재개되었다. 중앙간호연구원은 보건사회부 간호사업과의 산하 조직으로 서울시 을지로 4가 국립중앙보건소 2층에 개원하였다. 이금전은 원장으로 부임하여 “전시 중에 간호학생들이 정상대로 간호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보충시키고 또는 한층 더 연구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Lee, 1967) 간호사 재교육에 힘을 기울였다. 운영은 국제 한국재단, 한미재단, 록펠러 재단 등의 원조를 받았고, 보건간호학과와 기관간호학과를 두고 손경춘과 김복음이 각각 과장으로서 이금전 원장을 도왔다(Gwon, 1979; Kim, 1968)

중앙간호연구원의 재교육 수강자격은 간호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간호사로 하였으며, 각 15명씩 총 30명을 1년 과정으로 운영하였다. 교육은 “일류 대학교수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받게 하였고, 실습은 서울시내 여러 종합병원과 개정 농촌위생연구소의 보건소, 마산 국립 결핵 요양원, 부산 일신 산과병원에 각각 인솔자를 대동하여 파견 실습하게 하였고 또 여러 곳의 위생시설을 견학”(Lee, 1967) 시키는 등 탄탄하게 운영되었고, 3년간 3회에 걸쳐 90명을 졸업시켰다. 그러나 “전시 후에 임시적 조치로 된 기관인 고로 그 사업을 할 만한 건물도 없고 운영자금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러한 사업은 어떤 큰 기관에 부속되어 가지고 발전을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이므로 단독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장래가 별로 희망적이 못된다는 이유에서” 폐지되었다. 그렇지만 이곳을 졸업한 간호사들은 “각 지방병원 간호학교 및 보건소와 국립보건원에서 보건간호교육과 병원간호행정 지도자의 입

장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그 중의 다수 간호원이 외국유학의 길을 얻게 되어”(Lee, 1967) 우리나라 간호계의 지도자로서 간호 발전에 기여하였다.

중앙간호연구원은 폐지되었지만 간호사 재교육은 중단되지 않았다. 국립의료원과 국립중앙보건소에서 이를 이어나가 국립의료원에서는 병원 간호사를 모집하여 재교육 훈련사업을 하였다. 국립중앙보건소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던 보건소에서 일 할 수 있는 간호사 훈련을 1958년부터 실시하였다(Lee, 1967). 한편 이금전은 중앙간호연구원 폐지 후에 중앙의료원 간호과장으로 일하면서 이화여대 교수 손경춘 등과 함께 “보건간호지침”을 저술하였다(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59).

이렇게 간호교육, 행정, 조직을 아우르며 지도자로서 역할하고 있던 이금전은 그 공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아 연이어 상을 받았다. 1955년에는 서울시 공관에서 표창을 받았는데, 이 표창은 서울시에서 광복 1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해방 후 사회 각 분야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활동한 19명의 여성에 대하여 준 것이었다. 수상은 교육계, 사회사업계, 여자청년운동, 부녀사업계, 예술계, 문화계, 의료계 등의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 이금전은 의료계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A Commendation Ceremony Done Yesterday, 1955; Honoring 19 deserving Women, 1955). 또한, 2년 후인 1957년에는 보건사회부로부터 상을 받았다. 1957년 4월 7일 제 6회 세계보건일을 맞아 보건사회부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사업에 공이 큰 12명에게 표창장과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그중 포함된 것이다.

1959년 이금전은 간호계의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헌신한 점을 인정받아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받았다. 나이팅게일기장은 1920년부터 국제적십자사에서 간호활동이나 보건사업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 국제 기념 메달을 수여하는 것으로(KNA, 1977) 1957년 제16회 나이팅게일 기장 수여에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이효정이 선정되었고, 이금전은 1959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여받은 것이다. 이금전의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은 한국 간호계의 명예를 국내외적으로 높이는 경사였다. 기장 전달은 대통령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직접 하였고, 일간지에서는 연이어 나이팅게일 수상 소식을 보도하고 이금전의 행적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Conferred to Madame Lee, 1959; Delivered to Madame Lee, 1959; 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뿐만 아니라 5월 22일 대한적십자사 강당에서 거행된 수상 광경을 촬영한 것이 ‘대한뉴스’에 포함되어

TV가 없던 당시에도 전국 각지의 영화관 등에서 국민들은 생생하게 수상 광경을 볼 수 있었다(Conferment Ceremony of Nightingale Award, 1959).

6. ‘보건간호학’ 저술

이금전은 1960년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였다(Park,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3, 2012). 그러나 은퇴 후에도 보건간호 발전과 간호사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63년 7월 22일에서 24일까지 중앙의료원에게 개최한 간호 사회과학 교육 세미나에서 “직업적 태도 및 간호원의 복장-간호윤리 정신에 입각하여”를 발표하였다. 이금전은 직업과 태도의 정의에서 출발하여 간호사의 직업적 태도를 11가지의 문답 형식으로 검토한 후, “간호직업에 대한 태도는 항상 이 사업을 질적으로 향상과 발전을 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환자들에게 좀 더 좋은 봉사를 하며 동시에 간호원의 사회적 지위가 국내 국외에서 더욱 견고해져야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간호사의 복장에 관하여 그 유래와 변천과정을 짚은 후, 간호직업의 위신을 손상케 하지 않도록 복장에도 관심을 갖고 옷차림을 할 것을 깎, 유니폼, 구두 등으로 나누어 조목조목 설명하였다(Lee, 1963).

1965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캘리포니아 로마린다(Loma Linda)에서 거주하면서도(Park,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3, 2012) 간호 논문 작성과 저술에 힘을 쏟았다. 이금전의 본격적 논문으로는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보건간호 면에서 본 결핵간호”는 1966년 연세대 간호학 연구소에서 발행한 간호학회보 1권에 실린 것이다. 이금전은 이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결핵 사업을 해방 전, 해방 후, 대한결핵협회, 세계 기독교 봉사회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후, 가정방문을 통하여 파악되는 우리나라 결핵 환자의 특징을 기술하고 스칸디나비아와 세계 보건기구의 결핵 사업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간호사가 결핵 환자를 면접할 때 알고 있어야 할 항목을 16개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Lee, 1966).

1967년에는 자신의 보건간호에 관한 지식과 경험의 집대성 ‘보건간호학’을 완성하여 출판하였다. 우리나라 저자의 보건간호학 단독 저서로는 김옥실에 이어 두 번째였다.(Kim, 1968) 이금전은 책 서문에서 저술 배경과 목적을 “보건간호원에게 정부는 보다 광범한 공중보건의 지식과 연구자료와 통계를 제공해 줌으로써 소기의 과업을 완수하는데 그 기초사업으로 엮어 낸 것... 그간 외서에만 의존한 보건간호학은 극소수의 간호원에게만 이해를 주었을 뿐, 거의 언어의 장벽으로

논 의

충분한 지식의 이해와 흡수의 진도가 시급한 현실의 요구에 뒤따르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책 구성은 크게 총론과 각론의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필수과목과 보건간호원이 체득해야 할 각과 보건간호와 관련성이 있는 과목만을 구별 종합해서 학생들이 이 한 책으로서 충분히 보건간호의 윤곽을 파악하며 그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책의 내용은 “특히, 전 국립중앙보건소장 이종학 선생님 저술인 ‘보건소 행정과 활동(1959년판)’과 인도간호원회에서 출판한 ‘보건간호지침(1960년판)’이 이 책을 편찬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음을 명시하였다. 이금전은 이 책을 내는 의의가 우리 현실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점이지만 “이 책의 어떤 부분은 외서를 번역한 곳이 있어 우리에게 참고로는 적당하나 우리 현실에 적용시키기에 부당한 것이 다소 있음을 말해 두는 바이다”라고 저자로써 조심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금전은 총론에서 “보건간호의 역사적 고찰, 보건행정, 보건사업의 배경, 공중보건의 정의와 원칙, 보건간호 윤리, 공중보건의 발전원인과 보건사업 계획 및 활동, 보건간호 직무 한계, 보건간호 가방 사용하는 법, 보건간호원과 보건소 업무, 보건간호 처무규정, 보건간호에 관한 면접, 응급처치, 환경위생, 보건교육, 보건간호 감독하는 법, 기록과 보고, 보건통계”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각론은 “모성보건 간호, 가족계획, 영유아 보건간호, 학교보건, 학교보건간호, 산업보건간호, 결핵관리와 보건간호, 전염병관리와 보건간호, 소아마비병, 성병과 보건간호, 나병과 보건간호, 기생충학”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보건사업과 주요 이슈별 보건사업을 기술하였다. 책의 맨 마지막에는 부록으로 의료법 등 주요 관계법규를 실어서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Lee, 1967).

이금전은 1973년 4월 17일 대한간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최고 공로상 수상자 13명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으며(KNA, 1997) 거주하고 있던 미국 남가주한인간호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하였다. 1979년에는 대한간호 100호를 기념하여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을 기고하여 한국 간호 발전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였다. 이금전은 이 글에서 우리나라 간호의 역사를 약술하고 대한간호 100호의 의의를 짚었을 뿐 아니라 일차보건의료(primary health care)의 견지에서 간호사의 역할과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Lee, 1979).

1900년 출생하여 평생을 우리나라 간호 발전에 헌신한 이금전은 1990년 5월 7일 영면하였다(Park, H., Personal Communication, December 13, 2012).

1900년에 태어난 이금전이 이후 평생을 보건사업에 헌신하게 된 계기는 미비한 예방의료의 후유증을 본인이 겪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중두규칙’과 ‘중두의양성소규칙’에 입각해서 조선정부가 우두법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Shin, 2004). 이금전은 서울에서 개화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 슬하에서 자랐으므로 우두접종을 받고 두창에 대한 인공능동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금전의 친척 중 한명이 불행하게도 우두접종의 부작용으로 사망하여 이금전은 우두접종을 받지 않았다. 그 결과 3세에 두창에 걸렸고 다행히 회복했지만 그 후유증으로 얼굴에 ‘마마자국’이 남게 되었다.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이금전은 보건의료가 개인의 삶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느끼고 이 분야에 종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금전의 교육적 배경은 개종한 집안에서 태어나 종교 집단에서 세운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 사회 봉사의 정신 아래 전문가로 성장하게 된 우리나라 근현대 여성 전문직 진출 과정 첫 세대(Cho, 1988)의 전형을 보여준다. 즉, 열 살에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보통과, 고등과, 대학 예과를 연속으로 마치는 과정을 통하여 한글, 한문, 일어, 영어 등 4가지 문자를 익히고 동서양과 인문·사회·자연과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 당시 우리나라는 여성이 정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도, 여성 교육기관도 드물어서 1930년에도 문맹률이 90.05%에 달할 정도였으므로(Kim, 1999) 이러한 이금전의 교육적 배경은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훌륭한 발판이었다. 이금전은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의사가 되기를 꿈꾸었지만 연경대학 문리과 수료 후 건강이 좋지 않아 귀국하였고, 이때 20대 중반이었음에도 결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건의료 전문가, 여성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학사 준비과정이었다던 이화여자전문학교 문리과를(Ehwa Womans University, 1994) 제1회로 졸업하였고, 이무렵 이금의 장래 희망은 간호계의 지도자로 구체화되었다.

이금전은 세브란스 산과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후 대다수의 졸업생처럼 선교계 병원에서 일하지 않고 태화여자관에서 보건간호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실무의 첫발을 내디뎠다. 여기에는 공중보건에 종사하겠다는 어린시절부터의 다짐, 재학 중에 태화여자관에서 모자보건 실습을 했던 것(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태화여자관 측에서 능력 있는 이금전을 필요로 했던 것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금전은 1929년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간호협회에 참석하고 토론토대학 공중위생학과에서 공부하여 지역사회간호사로써의 전문성과 깊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갖추었다.

이금전은 캐나다 유학에서 돌아온 후 태화여자관, 경성연합아동보건회, 경성 탁아소 등을 기반으로 10여년을 보건간호 실무에 종사하면서 사업을 이끌었다. 20세기 초 서구 사회가 인구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을 매우 중시하면서 모자보건에 치중하였으므로(Porter, 1999) 서구의 선교본부에서 기반을 제공하고 선교간호사를 파견하여 시행되던 우리나라의 선교계 지역사회간호사업은 모자보건사업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었고, 이금전 역시 이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였다.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신여성조차 직업인으로써의 수명이 길지 않았고, 산과 면허 소지자는 대부분 자신의 조산원을 운영하며 생활의 안정을 꾀하였던 점(Yi, 2003), 이금전이 35세에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던 점, 그리고 현대에도 교육 보급률에 비하여 고등 교육 받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지 않다는 점(Cho, 1988)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이금전의 전문직과 전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은 특별한 것이었다. 또한, 같은 시대의 인물로 정종명이나 한신광이 일제 압박에 항거하는 가족에서 태어나 조국 광복을 위한 일꾼으로 성장하여(Cho, 1988) 이금전과 유사한 교육 및 직업 경력에도 독립운동, 여성운동 등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것(Yi, 2006; Yi, 2012-b)과도 차이가 있었다. 이금전은 지역사회간호사업, 간호서적 출판, 후배 교육 등 자신의 전문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하면서 소명을 다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일제의 식민정책이 간호정책과 사업을 좌우하던 상황에서 이금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선교계 민간 사업에 머물렀고, 정부 조직에서 리더로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제의 전쟁 확대로 선교사업이 극도로 위축된 일제 말에는 그 기반조차 없어지고 말았다.

해방 후 이금전은 정치적 격변과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의하여 자신의 일을 계속해야했을 뿐 아니라(Cho, 1988) 일제시대 민간과 선교계의 영역을 넘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해방 후 일본인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인력이 태부족했던 상태에서 남한에 진출한 미군정은 서구 유학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속속 고용하였다(Kim et al., 2008). 이금전에게는 보건후생국의 보건사업과장으로 우리나라 보건간호행정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금전은 간호사를 재교육시켜 전국 보건간호행정직에 배치함으로써 국가적 보건간호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조직의 축소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금전이 다른 정부 간호지도자들과 함께 창설하고 운영에 참여한 간호전문직 단체는 성공적으로 설립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KNA, 1997). 한국전쟁이라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장이던 이금전은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장까지 겸직하면서 교육과 실무 양자에서 지도자로써의 위기관리능력과 역량을 발휘하였다. 특히, 세브란스 고등간호학교 학생 뿐 아니라 여타 학교의 간호학생까지 포함하여 교육시키고 수료증을 부여함으로써 간호인력이 절실한 전시 상황에서 간호교육이 지속되고 그 학력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사회 전체가 전쟁의 폐허와 혼란을 딛고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시기에 지도자로써 이금전의 역할은 정점에 달하였다. 중앙간호연구원의 원장이 되어 간호사를 재교육하여 전문성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이 전국의 간호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협회의 물적,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쏟았다. 이렇게 해방 이후 혼란과 한국전쟁 및 그 복구기를 통하여 간호 교육, 행정, 조직을 아울러 발휘된 이금전의 헌신과 지도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1953년 보건사회부장관 표창, 1955년 서울시 표창, 1957년 보건사회부장관상 수상이 이어졌고, 195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나이팅게일 기장을 수상하였다. 이금전의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은 30년에 걸친 헌신을 인정받은 것이었을 뿐 아니라, 한국 간호계의 성장과 공헌을 국내외에 인정받고 간호직의 명예를 드높인 경사였다.

이금전은 1960년 모든 공직에서 은퇴하고 1965년 미국으로 이주했지만 지속적으로 간호학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간호사 교육에 참여하고, 논문을 냈으며, 1967년에는 단독 저서 “보건간호학”을 출판하였다. 간호 분야 중에서 특히, 지역사회간호는 각 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문화 등을 반영하며 고유성을 띄기 때문에 외국 책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특히, 어려운 분야이고, 이금전의 “보건간호학”은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간호학 교재 편찬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만들어진 것이었다. 1920년대부터 간호 실무, 조직, 행정, 교육에 참여하며 역량을 발휘해 온 이금전으로써는 자신의 책을 낸 시기가 늦었다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일제시대부터 간호학 교재 출판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고 현직에 있을 때는 다방면에서 일을 하며 저술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1950년대까지는 국내 학계에서 개인의 저술활동이 드물었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호계의 초창기 지도자로써 다방면

에서 역할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공적인 학문적 결과물이 많지는 않았다.

이러한 이금전의 일생은 여성의 교육 기회가 많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던 식민지 조선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으로써 이후 평생에 걸쳐 사회적 책임을 다한 뛰어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900년에 태어나 간호계에 일생을 바친 이금전의 삶은 우리나라 근대화 이후 전문직 진출 상황에 따른 구분에서 첫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업 활동이란 사회 계몽 및 봉사라는 차원에서의 사명 또는 소명 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된 도리으로써 소명 의식에 찬 헌신적 세대'라는 특징(Cho, 1988)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이금전의 활동이 1920년대 민간 지역사회간호사업에서 출발하여 국가 간호행정으로 나아가고 1960년대 학문적 업적까지 이루는 모습은 그 시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며 민간의 간호사업, 국가적 체계 수립, 학문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발전을 보여준다. 또한, 이금전이 실무 현장에서 출발하여 조직, 교육, 학문, 행정으로 영역을 넓히며 지도자로서 역량을 발휘한 모습은 후배 간호사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일로써 자아실현과 사회 기여를 이룰 수 있는지 역할 모델이 되어 준다.

결론 및 제언

이금전(1900~1990)이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의 선구자로서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결론내릴 수 있다.

첫째, 일제시대에 태화여자관 등 등 선교계 보건사업을 기반으로 최고 수준의 지역사회간호 실무에 종사하며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중앙 정부 조직에서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제 말에는 사업 기반도 잃게 되었다.

둘째, 해방 이후 정부 보건간호과장과 중앙간호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간호행정의 지도자가 되어 전국적 간호행정체계 수립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의 기복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셋째, 일제시대 '조선간호부회' 활동을 시작으로 해방후 '조선간호협회'를 발족시키고 '대한간호협회' 회장을 역임하며 간호전문직단체 발전에 기여하였다. 이에는 정부 간호조직 지도자들의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

넷째, 한국전쟁기 세브란스고등간호학교장이자 간호원장으로써 교육과 실무에서 헌신하며 위기관리능력을 발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 인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 이금전 이후 세대는 간호사로서 어떤 과정을 경험하였는지가 구체화되고, 이를 통하여 특히, 해방 이후 지역사회간호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더 풍부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1930년대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학 서적의 계보 추적과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지역사회간호학의 학문적 변천과 발전을 탐구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A Commendation Ceremony Done Yesterday. (1955, September 27). *The Dong-a Ilbo*, p. 3.
- Baek, C. (1980). *Let's meet in heaven-the glorious life of Miss Shepping, missionary nurse*.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Be Careful Hookworm in the Summer. (1931, June 18). *The Dong-a Ilbo*, p. 4.
- Cho, H. (1988). *Women and men of Korea*. Seoul: Moonji Publishing Co.
- Conferment Ceremony of Nightingale Award. (1959, May 25). *Daehan News*, No. 215.
- Conferred to Madame Lee. (1959, May 19). *The Dong-a Ilbo*, p. 3.
- Delivered to Madame Lee. (1959, May 22). *The Dong-a Ilbo*, p. 3.
- Ehwa Womans University. (1994). *Ehwa 100 years history materials*. Seoul: Author.
- Ehwa Yonhee English Oratorical Contest. (1926, December 2). *Joongoe Daily Press*, p. 3.
- Free Diagnosis and Medication for Proletariat Children. (1932, July 27). *The Dong-a Ilbo*, p. 3.
- Graduates of Ehwa Womans College. (1927, March 20). *Choseon Daily Press*, p. 3.
- Grand Baby Show. (1935, October 1). *The Dong-a Ilbo*, p. 4.
- Grand Inauguration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1946, November, 11). *Jayoo Shinmoon*, p. 2.
- Gwon, I. (1979). The transition of public health. *Kor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9, 4-9.
- Honoring 19 Deserving Women. (1955, September 25). *The Kyunghyang Shinmun*, p. 3.
- Kim, H. (1999). *A study on teenagers of Japanese colonial peri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M., Kang, Y., Kang, I., Moon, H., Park, S., Byun, C., et al. (2008). *History of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Kim, O. (1968). *Public health nursing*. Seoul: Soomoonsa.
- Korean Nurses Association. (1977). *Lady with a lamp*. Seoul: Korean Red Cross.
- Korean Nurses Association. (1997). *Seventy years of Korean Nurses Association*. Seoul: Author.

- Lee Kumjeon and Hong Hoyeon went for Honeymoon. (1934, October 14). *The Choseon Joongang Ilbo*, p. 4.
- Lee Kumjeon of Seoul Child-welfare Union, Raising Healthy Children. (1938, January 4). *The Dong-a Ilbo*, p. 2.
- Lee, D. (1993). *History of Taehwa Christian Community Center 1921-1993*. Seoul: Taehwa Christian Commun.
- Lee, K. (1954). Foreword. *The Korean Nurse*, 2(1), 1.
- Lee, K. (1957). Foreword. *The Korean Nurse*, 4(1), 1.
- Lee, K. (1963). Professional attitude and uniforms. *The Korean Nurse*, 7(1), 44-47.
- Lee, K. (1966). Tuberculosis nursing in public health. *Journal of Nursing Science*, 1(1), 119-126.
- Lee, K. (1967). *Public health nursing*. Seoul: Korean Nurses Association.
- Lee, K. (1979). The "Korean Nurse" in the past and future. *The Korean Nurse*, 18(3), 62-63.
- Lee, Y. (1991). *History of nursing*. Seoul: Soomoonsa.
- Maggs, C. (1989). *Exploring history: An introduction to nursing's past*. London: Continuing Nurse Education Programme.
- Mepool Foundation. (2012). *Biography of Mepool Jeon Sancho*. Seoul: Life plus in Seoul Nightingale award given to Lee Kumjeon. (1959, May 22), *The Dong-a Ilbo*, p. 3.
- Porter, D. (1999) *Health, civilization and the state*. London: Routledge.
- Report on the 12th Summer Camp of Men and Women Christian Students. (1928, August 31). *In Report on School Strike 1357-1*. Unpublished manuscript.
- Rosenberger, E. (1933). *Preface. In the Korea Nurses' Association, Public health nursing (pp.121)*. Seoul: The Korea Nurses' Association.
- Service of Hardship for 32 Years. (1959, May 31). *The Dong-a Ilbo*, p. 6.
- Shin, D. (2004). *Korean history of body and medicine*. Seoul: Yeoksabipyongsa.
- The Korean Nurses' Association. (1933). *Public Health Nursing*. Seoul: Author.
- The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1959). *Manual of public health nursing*. Seoul: Author.
- University of Toronto. (2012). *Lawrence S. Bloomberg faculty of Nursing*. Retrieved November 27, 2012, from University of Toronto, Web site: <http://bloomberg.nursing.utoronto.ca/about/historyoffaculty.htm>
- Unknown Author. (1931). International meetings and activities of Korean. *Dongkwang*, 17, 63-64
- Unknown Author. (1932). Men of abilities form 5 colleges. *Samcheonri*, 4(2), 13-24.
- Unknown Author. (1938). A visit of Kyungseong Nursery. *Samcheonri*, 10(1), 14-22.
- Yi, G. & Kim, H. (1999). Missionary public health nursing of Korea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0(2), 455-466.
- Yi, G. (2000). A study on two nursing organiza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6(3), 421-429.
- Yi, G. (2003). *Modern period of Nursing Profession in Korea*. Seoul: Hanul Publishing Co.
- Yi, G. (2006). The life and works of Han Shingwang.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15(1), 107-119.
- Yi, G. (2012-a). Forty years' development of the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3(1), 102-115.
- Yi, G. (2012-b). Jeong Jongmyung, a Korean feminist and mid-wife of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21(2), 551-592.
-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008). *100 Yonsei Nursing-Vision and Leadership*. Seoul: Author.